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온라인 뉴스서비스입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맛있는 투표!” 명장들의 투표 독려 캠페인



6·3 조기대선
‘맛있는’ 투표 캠페인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광역시에서 맛있는 투표 독려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다. 지자체와 광주 지역 명장들이 손잡고 유권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이벤트를 선보이고 있는 것. ㈜베비에르 대표이사인 마옥천 명장은 기표 모양과 함께 선거일인 6월3일을 새긴 ‘투표빵’을 출시했으며 가매 대표인 안유성 명장은 일식 메뉴에 투표 깃발을 꽂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전제과와 브레드세븐도 선거빵 캠페인에 동참하는 등 생활 속의 민주주의 실천을 위해 일상에서 투표를 떠올리게 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캠페인이 지속되고 있다.

5월18일 오후 5시18분 ‘민주의 종’ 33번 타종



오월 민주의 종
33번 타종 이유는

지난 18일 오후 5시18분 광주광역시 동구 5·18 민주광장 민주의 종각에서 5·18 민주화운동 45주년 타종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이 특별 초청돼 연대와 추모의 의미를 더했다.

민주의 종은 매년 33번 울린다. 이는 관세음보살이 중생을 구하기 위해 33천(天)으로 분신했다는 불교 신화에서 유래했으며 현재는 광복절과 5·18 정신을 상징한다. 민주주의 확산과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를 지니기도 했다. 또한 민주의 종은 2005년 민주와 인권, 평화의 상징물로 세워졌으며 무게는 30톤, 높이는 4.2m, 바깥지름은 2.5m다. 종에 새겨진 글씨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것이다.

금타 광주공장, 함평 이전 속도 빨라지나



금호타이어 화재로 국과수
떠오른 ‘함평 신공장 이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약 77시간 만에 완전히 진압됐다. 하지만 2공장의 정련 설비를 비롯해 반제품 가공 설비와 성형 공정 설비 등 절반 이상이 전소되면서 몇 년째 말만 오가던 함평 신공장 이전 논의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22년 함평군 소재 빛그린국가산단에 50만㎡ 규모의 부지에 대한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 금호타이어는 이전 비용을 광주공장 부지를 팔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공장 용도로 묶여 있어 상가 및 아파트의 건설을 위해서는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 광주광역시 측은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의사를 내비쳤고, 금호타이어는 2018년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된 상황이라서 먹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e스포츠는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



‘오늘만 페이커’
QWER 배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17일 제45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광주광역시 동구의 조선대에 위치한 광주이스포츠경기장을 찾았다.

이 후보는 이날 처음으로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를 배워 직접 플레이했고, 챔피언 블리츠크랭크를 선택해 평타와 궁극기로 미니언을 처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플레이 이후 “e스포츠를 약물 중독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장을 갖춘 지역에서 더 많은 활용이 이뤄져야 한다. e스포츠는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이라고 밝혔다.

박현일의 색채 인문학 235 주황색과 세대 그리고 국가

‘네덜란드 국민의 기호 색’ 주황

●색채와 연령

뮌헨 논리심리학회 이사인 에텔(Ertel, Henner)은 1975년 9월17일 발행된 ‘타임’지에 자신의 글 ‘파랑은 아름답다’에서 색채가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내기 위해 천장이 낮은 방을 각각 다른 색으로 칠했다. 그 결과 파란색, 노란색, 연두색, 주황색들은 인기 있는 색이다. 이와 같은 색으로 칠한 방은 지능을 12포인트나 올릴 수 있었다.

카츠(Katz)는 그의 저서에서 성인의 색채 선호도를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성인이 되면 파장이 긴 색(빨강과 주황 그리고 노랑)보다 파장이 짧은 색(파랑과 청록 그리고 초록)을 훨씬 더 좋아하게 된다.

성인들이 좋아하는 색의 순서는 파랑, 빨강, 초록, 보라, 주황, 노랑의 순이다. 이 순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은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일치한다.

카츠(Katz, S. E.)는 브리드(Breed, F. S.)와 함께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에 대해 연구하였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은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자주색, 노란색, 주황색의 순서대로 좋아한다. 공포증 환자들이 따뜻한 색을 더 좋아하고, 우울증 환자가 그리는 그림은 조급한 경우에 오렌지색을 즐겨 사용한다.

●그리스

크노소스(Knossos)라는 색은 크레타(Crete)섬의 크노소스 궁전을 이미지시킨 짙은 주황이다. 유럽의 고대 크레타 문명은 미노스(Minos)가 지배한 시기부터 미노스 문명이라고 하며, 미궁(迷宮)이라 불리는 크노소스 궁전은 1000개 이상의 방이 있다.

코린스 핑크(Corinth Pink)라는 색은 예술과 상업의 중심지였던 코린스를 이미지시킨 칙칙한 주황이다. 코린스는 호메로스(Homer)가 ‘풍요로운 코린스’를 노래한 고대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Peloponnesos) 반도의 교통 요충



네덜란드 스케이트 팀을 응원하고 있는 응원단.

뉴시스

지이다. 코린스에는 그 무렵 1000명의 시녀가 봉사하고 있었고, 아프로디테(Aphrodite)의 신전이 있었으며, 코린스식 기둥과 도자기가 유명하다.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국기는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전반까지 오렌지색과 하얀색 그리고 파란색 3가지 색을 사용하였으며, 여러 가지 문제로 1937년 오렌지색을 빨간색으로 바꾸고, 하얀색과 파란색을 사용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오렌지색이 왕과 동일시되었으며, 네덜란드 오라이언 공작 헛 빌헬름스(Het Wilhelmus)를 말한다. 그는 네덜란드 독립운동의 지도자로서 오늘날까지 추앙받고 있다. 그래서 네덜란드인들은 국제적인 스포츠 경기 때 오렌지색 유니폼과 깃발을 펴리며, 이것은 오라이언 공작(‘오라이언 공작’의 명칭은 오렌지색을 의미하는 프랑스 남동부의 오랑주를 네덜란드어로 표시)을 기억하려는 마음이다.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에 네덜란드 선수들은 주황색 셔츠를 입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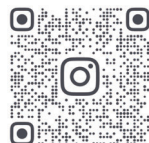
네덜란드에서는 매년 4월 거리에서 사람들이 오렌지색 옷과 장식 그리고 분장하고 ‘퀸스 데이’(Queen’s Day) 축제를 즐긴다. 네덜란드에서 주황은 국민의 기호 색이며, 특히 주황은 제일(祭日)에 사용된다.



문화예술 기획자/ 철학박사·미학전공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인스타그램에서 진일보를 검색하세요

<https://www.instagram.com/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